

고은사진미술관 강홍구전 2013.3.2-5,

집, 허리를 숙이고 그곳에 들다

강 선 학(미술평론가)

“삶은 행복하게 시작된다. 집이라는 품에 둘러싸이고 에워싸여 아주 따뜻하게 시작된다.”¹⁾

강홍구의 화면은 가득 차 있다. 어떤 빈틈도 허용하지 않는다. 마치 동네 어느 곳을 잡아도 그렇고 그런 장면들뿐이라는 듯하다.. 그렇게 이어져 있다. 그런데 그의 화면 속 동네들은 내부에 입체공간을 가진 구조물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저 평면으로 오려붙인 콜라주 같다는 인상을 준다. 집들은 서로 닮은꼴이지만 각기 다른 공간을 안고 병렬이나 병치, 무작위한 집적으로 이루어진 듯하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작은 차이의 변별마저 떨어지고 만다. 집, 골목 따위의 공간은 잡다하고 단조로운 면과 선분들의 연속체로 다가온다. 팽팽한 힘의 동질성 속에 있는 벡터들 같다. 말하자면 구조적 층위보다 전면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이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며, 그렇게 보아야 하는 것이다. 때로 스펙터클로서의 흥미가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렇게 보이게 한다. 강홍구의 이번 사진이 주는 의미들의 외연과 내포이기도 하다.

일견되는 이런 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온전한 집에 비해 이곳의 집, 문, 창 등은 턱없이 크거나 작다. 어긋난 비례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자신을 지탱하고 있다. 집집마다 다른 색상을 보이고, 층마다 다른 색상으로 도색을 해서 울긋불긋한 종이색지를 붙여놓은 것 같다. 계단, 문, 지붕, 창틀의 선들은 전깃줄과 빨랫줄, 물탱크들과 어울리면서 일견 단순한 구조의 화면을 갈가리 찢어준다. 어떤 통일감도 일체감도 조화도 없다. 어떤 통제도 불가능한 자신의 형태들로 이루어져 있다.

골목에 내놓인 크고 작은 플라스틱 통들은 왜 그리 많은지, 그리고 그 좁은 길에 화분들은 왜 다들 끌어안고 있는지. 동네를 이루는 선들은 그렇게 곳곳에서 끊어지고 단락이 난다. 웅중거리며 모여 있는 선들의 단락들이 화면 여기저기를 떠돈다. 골목머리에 자리한 변소는 합판으로 이어붙인 문짝을 달고 비탈진 언덕길의 흐름을 끊고 그곳을 지키고 있다. 다들 그런 모양새다.

이런 남루한 구조와 풍경 사이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물론 창 밑으로 화초를 잔뜩 세워놓은 곳에서 세 늙은이가 나앉은 작품도 있다, 그런데 이들 세 사람은 각기 다른 곳을 보고 있다. 그 끝 계단참에는 하릴없이 앉은 남자의 모습도 잡힌다. 비근한 한 순간의 모습이지만 동네 정황을 대신한다. 골목 끝자락에서 뒷모습을 보이는 작품도 없지 않다. 그리고 바다를 내려다보듯 한 장독대와 물탱크, 슬레이트 지붕과 전깃줄이 화면을 분할하고 있는 작품, '영도'에도 돌아선 사람이 등장한다. 그러나 이번 작품전에서 인물은 특별히 드러나지도 않고 특별한 역할도 없다, 그저 세숫대야나 플라스틱 통이나 전봇대나 나앉은 의자에 다르지 않다. 인물은 정물이나 풍경으로 거기 있을 뿐이다, 사건이나 서술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

역지로 외벽에 붙여낸 급한 계단은 손잡이에 의지해야 겨우 운신이 가능하게 이층으로 이어져 있다. 그런 정도이다. 어떤 이야기도 서술도 사건도 필요치 않다. 게다가 이번 사진은 집 하나를 온전하게 다 잡은 것이 많지 않다. 각도 거리도 나오지 않는 공간 사이를 비집고

1) 프리드리히 볼노, 인간과 공간, 이기숙 옮김, 에코,2011.p.173

박아내고 있다. 그러니 화면은 가득차고 풍경에 있어야 할 원근이 드러나지 않는다. 빈 공간조차 숨 돌릴 틈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집이 생산하는 일상의 모습을 잡아내기 쉽지 않은 각도들이다. 게다가 그의 집은 견고한 장소로서 풍경이 아니라 금방이라도 필요하면 뜯어내고 다시 짓고 고치고 덧붙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가설물 같다.

그의 사진에는 새삼 대도시의 그늘이라느니, 소외된 이웃이라느니 따위의 서술이 보이지 않는다. 사람보다 집들의 모양새, 골목의 모양새, 그들이 모여 만든 구조들에 앵글을 맞추고 포착한다. 사건도 정황도 긴박감도 없다. 그저 그곳에 있는 집들의 모양새, 동네의 구조만 잡았다. 그러나 그 모양새는 하나의 이미지로서 자신의 의미들을 견고하게 지키려 한다. 이주와 전쟁, 가난과 임시가옥의 불안함, 성장판에 문제가 생긴 나이든 아이 같은 세계의 모습들이 그런 것이다.

부산의 서동, 안창마을, 감천동, 매축지마을, 문현동, 물만골은 기존하는 거주지에서 개발에 의한 이주 마을이거나 한국동란 이후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마을이다. 부산이라는 거대도시가 형성되기 전의 단계를 보여주는 사회역사적 흔적과 상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다. 임시로 천막을 치거나 움막을 지어서 거처로 삼다 판잣집으로 모양이 갖춰지고 블록이나 슬래브로 개축하고 층내에는 4층짜리 연립주택으로도 진화된 모양을 갖춘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곳은 잃어버린 삶, 도심의 '포개진 상자'에서 사는 것과 다른 언어의 세계이다.

서동은 온천장과 잇닿은 부곡동과 회동수원지 아래 농사를 짓던 금사동 사이의 고갯길을 중심으로 형성된 정책이주지역이다. 인근의 금사동, 회동동은 금사공단으로 한 때 많은 사람들이 거주, 흥성했지만 지금은 공장들이 빠져나가면서 서동 쪽에 공동화 현상이 생긴 것이다.

안창마을은 덩그러니 높은 곳에 올라앉은 마을이다. 부산의 핵심이라는 서면과 부산부두가 내려다보이는 곳이다. 동네 뒷산 고개에 올라서면 개금과 가야, 초읍과 당감동 쪽이 훤히 보이는 곳에 터를 잡았다. 그곳은 도심의 높은 외곽이다. 안창마을은 한국동란 중의 피난과 환도 이후에 초량, 신암, 자유시장으로 이어지는 산비탈 판자촌이다. 노점이나 부산부두에서 날품을 팔아 생계를 꾸려가던 시절에 터 잡은 장소이다. 통일교라는 신흥종교가 그곳에 교세를 확장하면서 본격적으로 확장, 자리를 잡은 동네이다.

감천동 마을은 광복동, 자갈치, 충무동, 다대포를 중심으로 생계를 지탱하는, 연고나 거처가 없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신흥종교의 영향으로 결속력을 가지면서 배타적으로 형성된 곳이다. 한국동란 때 태극도 신도들이 대거 자리를 잡으면서 형성되었다 하여 태극도 마을이라고도 불린다. 형형색색의 집들의 구조를 보고 아이들의 장난감 레고를 쌓아올린 것 같다 하여 요즘엔 레고 마을이라고도 한다. 그런 지칭은 그들의 삶과 사회적 관계를 묻기보다 인상적인 볼거리로 내몰고 있다는 우리의 피상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석탄가루로 뒤덮였던 매축지 마을의 모습은 지금도 남루하기만 하다. 영겨 붙은 도로와 골목 사이에 빠져나오는 것은 검은 땅을 덮은 시멘트다. 가설무대 같은 집들은 서로가 서로를 기대며 모양새를 갖춘다. 도시에 새겨진 막도장 같다. 매축지 마을은 서면, 범일동, 범넛골에서 내려오는 동천을 끼고 북항(北港) 주변의 일거리를 밀천으로 매축지에 형성된 마을이다. 일제 강점기부터 바다를 매립한 곳으로 철도와 항만이 가까이 있어 한국동란 때 피난민들이 대거 거주하면서 피할 수 없게 된 곳이다. 지금은 쪽방 밀집지역이자 도시 취약계층

이 50%에 달한다. 초량의 산복도로 마을이나 안창마을과 연계된 동선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문현동이나 물만골도 크게 다르지 않다. 문현동은 매축지마을 건너 동쪽 고개에 자리 잡은 마을로 전포동과 서면을 내려다보면서 광안리와 남천동으로 진입하는 곳이다. 1970년대 중엽 확장되는 산업도로와 고가도로의 중심에 접하면서 개발바람으로 기존 동네는 소개되고 아파트 마을로 변했다. 한국동란 전후 몰려든 피난민들이 산비탈 높은 곳에 마을을 이루어 돌산마을이라고도 하는데 그 곳만 남아 1960년대쯤의 옛 모습을 보여준다.

물만골은 서면, 양정, 연산동을 중심으로 생업을 이어가는 이들이 연산동 쪽 금련산 자락에 모여 사는 곳이다. 규모나 자리한 터가 다른 마을보다 작다. 한국동란 때 군사도로를 개설하고 1953년경에는 농장이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1964년 경 초량 매축지 철거민들이 모이면서 생성된 마을이다. 물이 풍부하다고 물만골이라고 한다. 1990년대는 무허가촌으로 철거 대상이 되기도 한 곳이다. 그러나 이제는 생태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려 한다. 오물과 쓰레기를 만들지 않기 위한 갖은 노력들이 많은 이들에게 관심을 끈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물만골을 출발로 삼아 금련산을 종단, 남천동, 광안동으로 가는 길을 내면서 이를 지키기도 쉽지 않게 되고 있다. 길이란 편리하지만 언제나 개발이라는 번잡함을 묻혀오고 더불어 체제의 통제를 받기 마련이다.

서동이나 감천동은 아예 부산이라는 도심에서 벗어난 곳이다. 지금은 슬며시 들어선 집과 계획된 도로와 도시개발에 의해 어느새 외곽이 아니라 요충지가 되어가고 있다. 강제이주와 전쟁은 어느 면에서 비슷하다. 자신의 의사와 무관한 낯설고 불편한 외곽지대에 집을 풀게 한다는 점에서. 그런 이유만은 아니지만 그런 시대상의 배후에는 구제불능의 가난이 생산되고 그 속의 생산물인 가난한 이들이 갈 곳은 산비탈 높은 곳이거나 출입이 쉽지 않은 도로 없는 외곽지대일 수밖에 없다. 도로가 없던 그곳은 욕심낼만한 곳이 아니다. 욕심내지 않으면 안전하고 가난해도 자신이 거처할 집을 만든 곳이 이들 마을이다. "인간에게 집을 빼앗거나 조금 더 신중하게 말해 집의 평화를 빼앗으면 그의 내면은 필연적으로 붕괴한다."²⁾ 그래서일까. 이곳은 그 붕괴를 필사적으로 막으려 한다. 카오스의 세계에서 코스모스는 무엇보다 집에 해당되지 않는가.

도로는 통치 체제이다. 그러나 "도로망 확장의 이면에 숨은 지배와 계획이라는 두 원칙을 확인"³⁾할 수 없는 곳이 이들 동네다. 이곳의 도로는, 아니 골목길은 통치가 아니라 숨구멍이며 계획이 아니라 절박한 필요의 결과이다. 이곳은 통치체제에서 벗어나 있는 곳이다. 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걷기만 허용된다. 걷기만이 가능한 골목의 집들이다. 그곳은 보러가지 않고 보거나, 그곳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지각하는 곳이 아니다. 보고, 만지고, 더듬거리며 그 질감을 걷기를 통해 만나는 곳이다.

"장소를 공간 속에 기입해주는 활동이 있다고 할 때, 거기에는 다른 무엇보다 우선 걷는 것이 속한다. '드 세로트'는 걷는 것에 주목한다. 걷는 것을 통해 도시공간이 비로서 생성되고 변화한다고 보았다. '걷는 행위가 도시체계에 갖는 의미는 발화가 언어에 대해 혹은 형성된 명제에 대해 갖는 의미와 유사하다.' 화자가 언어를 사용하는 것과 유사하게 걷기에서는 도보자를 통한 '지형학적 체계의 습득'이 일어난다. 더 나아가 걷기는 '장소의 공간적인 실현'을 묘사해준다. (그래서 걷기는 언어를 말소리로 현실화하는 화행에 비교할 수 있는 활동

2) 프리드리히 볼노, 앞의 책, p.177

3) 오토 프리드리히 볼노, 앞의 책, p.129

이다)⁴⁾

그가 보이는 동네의 골목은 차로 움직이는 도로가 아니라 걷기만을 허용하는 장소이다, 그렇게 세계에 대해 말하고 그 말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다. 걸으면서 비로소 그가 속한 공간은 공간이 아니라 장소가 되고, 세계가 된다. 그것은 집의 외부가 아니라 내부이며, 내부이자 외부이다. 내가 그것 자체가 되는 경험이다. “공간과 인간의 원초적인 관계는 거주와 관계이지 지향성의 관계가 아니다.”⁵⁾ 강홍구의 작업, 집은 여기서 비로소 자기만의 지점에 닿는다. 부산의 초량, 산복도로, 감천동예의 관심이 만든 여느 사진들, 현실조차 비현실화 시키는 보이기의 일상현실의 가속화 앞에서, 크게 다르지 않으면서 같지 않은 지점이다.

언급한 마을들의 모습은 비슷비슷하다. 어느 곳이라고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 특정 장소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유사한 구조와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다닥다닥 붙어선 지붕과 담벼락, 그 사이로 난 좁은 길, 가파른 경사, 지붕과 지붕 사이로 난 발두렁 같은 길로 이어진 동네 모습들이 그렇다. 낡은 지붕과 새롭게 올린 지붕의 어색한 만남, 집의 구조와 틀어져 있는 창, 대문이자 실내 출입구인 문, 철거한 문짝으로 이어놓은 점포, 여기저기 드러난 전깃줄, 가스통과 길에 내다놓은 잡다한 집안 집기들, 그런 정경들은 이들이 공유하고 있는 풍경이다. 아니 장소성이다. 언제부터 있었던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손질된 웅벽을 의지해 내민 증축들, 그 흔하고 반듯한 사각의 방이 아니라 이곳저곳 빈틈을 비집고 막아 세운 비정형의 방들, 다락같은 이층, 작은 창, 그 위에 올라선 물탱크, 허물어진 집터에 가꾼 채소밭, 집과 집사이의 경계를 잡을 수 없는 정경은 이곳을 읽게 하는 압축된 어휘들이다.

장소의 번식 혹은 번식의 사회적 관계라는 말로 묘사 가능한 공간이다. 골목을 사이에 두고 마주한 출입문과 여기저기 널린 빨래들, 길에 내놓인 어지러운 집기들, 경사를 따라 이어진 계단 길, 이것들이 화면 전체의 구조이자 구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홍구의 사진에는 사회적 공간으로서 장소를 목격하기 쉽지 않다. 그저 집들의 증식, 번식만이 잡혀 있을 뿐이다. “생물학적 번식과 사회경제적 생산이라는 이 두 가지의 층위는 사회적 번식, 즉 각종 갈등과 대립, 투쟁과 전쟁에도 불구하고 세대를 거듭함에 따라 사회가 지속되어어나가는 현상을 포함하면서 자본주의 전체로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와 같은 지속성 속에서 공간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야한다”⁶⁾ 그런 요청을 충족시키기에는 강홍구의 사진, 집들은 조금 비껴나 있다. 그럼에도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것들, 어떤 계획도 통제도 불가능한 것들의 시선이라는 면에서. 그것은 현실이며 사실이다. 그러나 “과거는 흔적을, 시간에 따른 글쓰기 자취를 남긴다. 하지만 공간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늘 현재진행형이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행위와 연결되는 하나의 전체”⁷⁾임을 읽어내어야 한다. 그러기에는 화면의 층위가 집과 동네의 외부만 드러낸다. 서두에서 그의 작품을 일견하면서 지적인 평면적이며 콜라주 같다는 인상의 연유이다.

평면적이거나 콜라주 같다는 구조적 결락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강홍구의 이번 작품들에서 가난과 거처라는 기묘한 결합, 접점을 보아낸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전언들, 도시에서 잊어버린 것들에 대한, 거주에 대한 원초적인 사유를 읽는다.

4) 킨첼 위움. 토폴로지, 이기홍 옮김. 에코,2010, p.360

5) 오토 프리드리히 볼노, 앞의 책, p.391

6) 앙리 르페브르, 공간의 생산, 양영란 옮김, 에코,2011.pp.78-79

7) 앙리 르페브르, 앞의 책 p.85

움집과 천막으로 얼기설기 엮은 피난처는 1950년대 부산에서 활동했던 김광석, 정인성, 이준무의 사진에서 흔하지 않게 목격되는 실상이다. 그곳에서 판자집을 엮고 흙집을 쌓고 블록으로 올리고 종내는 슬래브 집으로 변신하는 시간에서 우리는 마을에 대한, 집에 대한, 거처에 대한 우리의 모습을 보아내는 것이다. 도로와 골목, 집과 집, 그 사이의 통로, 지붕 위로 이어지는 지붕보다 더 높은 길들, 그리고 어떻게 손댈 수 없게 된 좁은 미로로 통하는 집과 집 사이, 사람과 사람사이, 그리고 그들이 만드는 사회적 공간을 다시 만난다. “인간은 살면서 언제나 자신을 둘러싼 공간에 대한 관계를 통해 규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⁸⁾이라면 이들의 삶은 이들의 공간으로 유추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사진은 애써 그들의 삶을 이야기 하려 않는다. 집들의 자기증식의 모습을 보여줄 뿐이다. 불법증축과 개축으로 이어지는 마을은 자연스러운 자기증식의 논리로 이웃과 다투듯 더불어 만들어낸 공간이자 어법이다. 그들의 삶은 그렇게 풀어 나간다. 그것은 적응이며, 필요에 의한 진화이며 변종으로서 생성이다. 언제나 옆으로, 위로, 틈만 있다면 증식 가능한 구조를 가진 집들을 만들어낸 힘이다. 증식 가능한 구조를 생산한 것이다. 가난해서 높이 올라가고, 가난해서 옆으로 몸집을 늘리고, 가난해서 길을 먹고 하늘을 먹고 이웃의 담장을 먹으면서 방을 증식하는 것이다.

집은 좁고 길 또한 좁다. 집에 드는 문은 더 좁고 낮다. 고개를 숙이거나 허리를 굽혀야 겨우 그곳에 들 수 있다. 허리를 꺾어 모든 것을 낮춰야 비로소 그곳, 안식처로 들게 한다. 그 작은 공간이 그들의 방이자 집이다. 거주로서 안식처이자 우주이다. 고개를 숙여야 비로소 출입이 허락되는 우주인 것이다. 아니 스스로 고개를 숙여서 드는 곳이다. “집은 어떤 면에서는 확장된 몸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은 몸의 경우와 비슷하게 자신을 집과 동일시하고 집을 통해 더 커다란 주변 공간에 편입된다.”⁹⁾

작은 문과 창을 통해 집밖을 보지만 그곳은 미로를 내다보는 언어의 장소인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언어로만 살지 않는다. 모든 ‘주체’는 공간 속에 위치한다. 거기에 그는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거나 길을 잃어버리고, 그 공간을 향유하거나 변화 시킨다”¹⁰⁾

“생산된 공간은 사고에서는 물론 행위에서도 도구 구실을 하는 동시에 생산의 수단이며 통제의 수단, 따라서 지배와 권력의 수단이 될 수 있다”¹¹⁾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 면에서 그의 작업은 ‘사회적 공간은 사회적 생산물’이라는 인식을 일깨워준다.

그러나 강홍구의 시선은 이들의 적극적 의지나 지배의 억압을 보이기에는 너무 은유적이다. 소극적이고 즉물적이다.

이제 이곳들이 보존지역으로, 재개발지역으로, 사회적 상징으로 남겨져야 하느니 어쩌니 찢고 까불고 있다. 벽화제작이니 문화창작공간의 건립이니 하는 공론의 조성도 권력과 지배의 구조가 피지배 지역을 확장해 나가는 너스레에 가깝다. 잊지 않아야 할 것은 “하나의 풍경이 지니는 힘은 그것이 구경거리로 제시된다는 점이 아니라 각자(그것을 느끼는 사람에게) 거울과 신기루처럼 환영에 불과하면서 동시에 현실인 하나의 이미지, 놀라울 정도로 속임수에 빠져버리는 주체(자아)가 일시적으로나마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하나의 이미지로 작동한다는 점”¹²⁾이다. 지금은 이곳을 이루는 집과 동네와 그것들의 관계, 타자와의 소통, 세

8) 프리드리히 볼노, 앞의 책, p.23

9) 오토 프리드리히 볼노, 앞의 책, p.377

10) 앙리 르페브르, 앞의 책, p.82

11) 앙리 르페브르, 앞의 책, p.71

12) 앙리 르페브르, 앞의 책, p.287

계와의 만남을 생각해야 하는 진정성이야말로 다급한 일이다. "사회적 공간은 번식의 사회적 관계 즉 가족이라는 조직과 더불어 성별, 나이에 따른 생물학적, 생리적 관계의 생산관계 즉 노동의 분업과 그 조직, 다시 말해서 위계질서에 따른 사회적 기능을 포함하며 각각의 활동에 적합한 장소를 할애 한다"¹³⁾는 그런 인식이 절실한 것 아닌가.

자신이 거처하는 곳에 대한 어떤 경외감도 없이 그저 교환가치의 유인특성으로만 삼는 집을 그들은 다르게 보여준다. 그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전언은 값이 아니라 집이다. 사람마다 다른 모양이듯 각기 다른 거처에서 사는 것의 일깨움이다. 그것은 사회적 질문이자 세계의 형상으로서 집을 일으켜 세운다. "집은 인간이 사는 세계의 구체적인 중심"¹⁴⁾이지 않은가. 이 시대 길과 창과 문, 그것들을 통해 고개와 허리를 숙이고 자신을 들게 하는 자신의 처소에 대한 경외감의 회복이야말로 강홍구의 집이 던지는 전언이다. 우리는 이 마을들이 생산된 사회적 관계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 포개진 상자를 생산하면서 원도심을 주변화 하거나 새로운 외곽지대를 만드는 지배구조의 속성을 이들을 통해 환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사회적 관계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대항해야 한다. 도시개발을 통해 지배와 피지배의 구조를 견고하게 하고 거주정책을 통해 우월한 지위를 획책하는 사회적 관계의 재생산에 주목해야 한다. 방치하듯 두었다 무허가로 철거하고 재개발하는 이 동네들의 갈등이 재현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집이야말로 세계를 시작하는 곳이다. 그 "공간은 결코 주체에서 분리된 대상이 아니다."¹⁵⁾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이자 요청이다.

바슐라르는 말한다. 인간은 집, 가장 안전한 곳에서 공간을 경험하고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강홍구의 집은 내부와 외부의 구별이 없는, 외부이자 내부인 세계를 우리에게 제시한다. 그곳은 가난이 아니라 사회적 공간으로서 집이라는 의미, 세계의 중심에 집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집은 용감하게 싸웠다. 집은 저항했다. (지붕은)등을 구부린 채 낡은 들보를 꼭 붙잡고 있었다."¹⁶⁾ 그 사실은 어떤 것에도 패퇴하지 않는다. 강홍구의 이번 사진을 이끌어가는 힘이다.

13) 르페브르, 앞의 책, p.78
14) 오토 프리드리히 볼노, 앞의 책, p.162
15) 오토 프리드리히 볼노, 앞의 책, p.22
16) 오토 프리드리히 볼노, 앞의 책, p.174,재인용